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1장 좁은 길

『산상설교』 하권 제51장, 인쇄 283~29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3~14

❓ 좁은 길이 좋은 건 알겠는데, 고개만 끄덕이는 것과 실제로 그 길에 들어서는 건 뭐가 다른가?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7:13~14이 좁은 길을 구경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들어가라는 행동 명령임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결단하고, 문을 찾고, 그 길을 계속 걷는 세 단계를 제시한다. 이어서 주님이 이 명령에 붙이신 이유들을 정리한다. 넓은 길은 공허하고 끝이 멸망이다. 두 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무엇보다 주님이 그 길에 먼저 가 계신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네 가지 난제를 다룬다. 중간지대가 있다는 뜻인지, 결정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지, 실패하면 넓은 길로 돌아간 것인지, 소수만 구원받는지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 푼다. 결론은 남의 구원을 따지는 대신 내가 그 문 안에 있는지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 복음은 결단을 요구한다

로이드 존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초대이면서 동시에 권면이라는 점부터 짚는다. 이 본문은 특별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라는 초대가 아니다. 경기장에 내려와 뛰라는 행동의 부름이다. 복음은 다른 철학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사상 하나가 아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겠다고 요구하며 다가온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하시자 그가 일어나 따라간 장면이 복음의 방식을 보여 준다. 복음은 “나를 고려해 보라, 칭찬하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믿으라”고 한다. 그는 옛 신앙 선배들의 예도 든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종이에 적고 서명하고 날짜까지 써서, 마치 사업 계약처럼 자기와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넘겼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의 관리를 넘기는 것과 같다.

1. 이 본문은 관람 초대가 아니라 행동 명령이다
2. 머리로만 아는 관심은 신앙이 아니다
3. 복음은 “따르라”고 하지 “고려하라”고 하지 않는다
4. 결단은 의지로 자기를 맡기는 일이다
5. 선배들은 언약에 서명할 만큼 진지했다

> **마태복음 7:13**
> “들어가라”는 명령형이 이 설교 전체의 출발점이다
>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 **마태복음 9:9**
> 마태가 일어나 따른 장면은 복음이 즉각적인 따름을 요구한다는 본보기다
>
>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복음은 항상 결단을 촉구하며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2. 문을 찾고, 들어간 뒤에도 계속 걷기

둘째 단계는 결단한 뒤 실제로 좁은 문을 찾는 일이다. 로이드 존스는 가장 큰 위험이

것이다. 이 일은 쉽지 않다. 지금 가던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기를 분석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답을 찾을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그는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예로 든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 독방에서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로 그 문을 찾았다. 조지 윗필드와 존 웨슬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맸고, 때로는 생각이 틀리기도 했지만 끝내 부지런히 구해 찾았다. 셋째 단계는 들어간 뒤에도 계속 걷는 것이다. 그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데서 풀린다고 본다.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는 순례자요 나그네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으로 가고 있다."

1. 가장 큰 위험은 동의만 하고 멈추는 것이다
2.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나"를 물어야 한다
3. 루터·윗필드·웨슬리도 오래 찾았다
4. 확신이 설 때까지 스스로 쉬지 않는다
5.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말한다

> **마태복음 7:14**
> "찾는 자가 적음이라" —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골로새서 1:13**
>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할 내용의 뼈대다
>
>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 **베드로전서 2:11**
> 그리스도인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자기 인식의 근거다
>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명령만 주지 않고 이유까지 붙이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것을 우리 연약함에 몸을 낮추신 목자의 마음으로 읽는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삶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하나님이 이레 중 하루를 공중예배로 정하신 것도,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신문을 예로 든다. 신문에 비친 세속의 삶, 곧 사교지에 사진이 실리고 옷차림과 외모로 이름이 나는 삶은 영혼을 걸 만큼 매혹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해 보면 허례와 겉치레뿐이다. 일조차 쾌락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삶에는 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남는 것이 없다. 반면 산상설교와 신약성경이 그리는 삶은 숭고하고 순결하다. 지성에도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 이 삶을 '편협하다'며 다른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는 셈이다. 베토벤이 지겹고 재즈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베토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것과 같다.

1. 주님은 명령에 이유를 붙여 주시는 목자다
2. 예배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자리다
3. 넓은 길의 화려함 속은 텅 비어 있다
4. 사람의 칭찬과 주목에는 참 가치가 없다
5. 좁은 길을 '편협하다'는 말은 무지의 고백이다

> **히브리서 4:15**
>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이유까지 주신다는 근거다
>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로마서 6:21**
>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 넓은 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
>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세상의 삶을 “헛된 행실”로 규정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4:4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4. 둘째·셋째·넷째 이유: 끝, 중간지대 없음, 앞서 가신 분

둘째 이유는 두 길의 목적지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 운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한다.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너희의 끝을 생각해 보라.” 넓은 길은 수치와 비참을 거쳐 사망에 이른다. 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다. 그는 세상을 즐기던 사람이 늙고 병들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맞는 장면을 그려 보라고 한다. 더는 마시지도, 춤추지도, 도박하지도 못할 때 그 손에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위인과 정치가의 전기도 그런 소멸을 보여 준다. 반면 좁은 길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결국 썩지 않는 유업에 이른다. 셋째 이유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다. 좁은 길에 있지 않으면 이미 넓은 길에 있다. 머뭇거림도 결정이고, “수동적 저항도 저항”이다. 넷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그 길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이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정선된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 앞서 걸으셨다. 그러므로 잃을 것을 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는 권한다.

1. 길보다 목적지를 먼저 생각하라
2. 넓은 길의 끝은 하나님과의 분리다
3. 좁은 길은 갈수록 풍성해진다

5.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그 길에 계신 것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 두 길의 끝이 대조된다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5:26

죽음은 '마지막 원수'다 — 세상을 즐기던 삶이 끝내 마주하는 현실이다

>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베드로전서 1:4

좁은 길의 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12:30

주님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다 — 중간지대가 없다는 원리다

>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6:24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 앞서 가신 분을 따르는 길이다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수동적 저항도 저항입니다.”

📜 5. 난제 하나·둘: 중간지대가 있는가, 결정으로 구원받는가

첫째 난제는 이 그림이 중간지대를 가르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람이 처음에는 선도 악도 아닌 중립 상태로 서 있다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보인다. 로이드 존스는 성경은 늘 성경 전체로 비교해 읽어야 한다고 답한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중에 잉태되어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며,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넓은 길 위에 있다. 주님이 두 문 앞에 선 장면을 쓰신 것은 한 가지 요점을 극적으로 보여 주려는 예화다. “네가 태어난 세속의 삶에 계속 머물겠느냐, 그것을 떠나 내 삶으로 들어오겠느냐”는 물음이다. 둘째 난제는 이 본문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는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성경은 이신칭의,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사람의 의는 누더기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는 자연인은 없다. 결론은 이렇다.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으로써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팔복도 같은 원리다. 내가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로 심령이 가난해졌기에 복되다.

1. 성경은 성경 전체로 비교해 읽는다
2.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넓은 길 위에 있다
3. 두 문 앞의 장면은 요점을 위한 예화다
4. 들어감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증거다
5. 자연인은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지 못한다

> **시편 51:5**
> 죄 중에 잉태되었다 — 중립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근거다
>
>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에베소서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 옛 삶을 떠나 들어가는 변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3:10

의인은 하나도 없다 — 자기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사야 64:6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누더기)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고린도전서 2:14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태복음 5:3

심령의 가난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6. 난제 셋: 실패하면 넓은 길로 돌아간 것인가

셋째 난제는 이렇다. 산상설교가 그린 삶에 우리는 자주 못 미친다. 다른 뺨을 돌려대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직 넓은 길에 있다는 뜻인가? 로이드 존스의 답은 분명히 “아니다”이다. 그는 먼저 예화의 세부까지 상징으로 짜내려 하면 우스꽝스러워진다고 경고한다. 이 문맥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이 길을 택했는가,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위해 애쓰는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가. 그렇다면 좁은 길 위에 있다고 그는 보증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좁은 길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지지만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어진다.

1. 예화의 세부를 억지로 상징화하지 말라
2. 기준은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과 갈망이다
3.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좁은 길 위에 있다
4. 죄는 교제를 깨지만 길을 바꾸진 않는다
5. 자백하면 즉시 깨끗하게 하신다

> **마태복음 5:39**
> 다른 뺨도 돌려대라 —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기준의 예다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마태복음 5:6**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 좁은 길에 있다는 표지다

요한일서 1:5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 죄가 교제를 깨는 이유다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7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 교제 회복의 길이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실패한다고 해서 그들이 넓은 길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7. 난제 넷: 소수만 구원받는가

마지막 난제는 "찾는 자가 적다"는 말 때문에 생긴다. 인류 대다수가 저주받는다는 뜻이냐는 물음이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 자신의 대답 외에는 줄 답이 없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사변적 신학 논쟁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하고 물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답하셨다. 몇 명이 구원받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들어가려고 애쓰고, '내가' 그 안에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다면 언젠가 영광 중에서 동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될

1. 구원받을 사람 수는 하나님만 아신다
2. 사변적 질문에 주님은 행동으로 답하셨다
3. 내 일은 내가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4. 영광 중에 그 수를 보고 놀랄 수도 있다

누가복음 13:23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 사변적 호기심의 질문이다

>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 질문을 행동 명령으로 돌리신 주님의 답이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좁은 길의 목표다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좁은 문·좁은 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들어서는 입구와, 그 뒤로 이어지는 제자의 삶이다.

넓은 길

결단(헌신)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과와 상관없이 의지로 자기를 그 진리에 맡기는 일이다.

이신칭의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자연인(육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겨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노의 자식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본래 상태다.

교제(사귐)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관계다. 죄로 깨질 수 있지만 자백으로 회복된다. 구원 자체와는 구별된다.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함
한 구절을 따로 떼지 않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하는 원칙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좁은 문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문이다. 복음은 결단과 실행을 요구한다.
- 넓은 길은 공허하고 끝이 멸망이다. 중간지대는 없으며, 머뭇거림도 그 길을

- 들어감은 나를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실패해도 자백으로 회복된다.
- 몇 명이 구원받는지 따지지 말고,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안에 있는지 확실히 하라.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